

상승세 코스피, 새 정부와 새 역사 쓴다

역대 대통령 집권 초기 1~2년 평균상승률 23~26%

세계 경제 회복·기업 실적 개선...당분간 상승세 전망

제19대 대통령은 코스피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최근 증시 환경이나 역대 대통령 집권 초기 1~2년간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신임 대통령은 지수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전 거래일보다 51.52포인트(2.30%) 오른 2,292.76으로 마감, 이틀째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일에 6년 만에 종전 사상 최고치(2,238.96)를 경신한 코스피는 상승세를 더 강하게 몰아붙여 이를 연속 증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코스피의 고공비행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기업 실적 호조 등 증시를 떠받치는 기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도 코스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데에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업종이나 경기 전반의 호황기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기업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더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번 상승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국면의 초기와 맞물려 있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최근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기 등 기초 여건이 워낙 탄탄하다. 기업 실적의 경우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세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현시점에서 최소 1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집권 초기 1~2년 차까지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했다는 분석도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는다. 최근 케이프투자증권이 직선제 개편 이후 뺀 13~18대 대통령 6명의 재임 기간 코스피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기 1~2년간의 평균수익률이 23~26%로 가장 높았다고 이후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경기 부양 노력을 기울인 시기와 글로벌 경기 환경 개선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케이프투자증권은 설명했다. 지기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계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통령 취임 시점이 맞물리거나 취임 1~2년 후와 겹칠 때 코스피가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5월도 환경이 좋다"며 "9일 당선되는 19대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더불어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서 출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대선 후 한 달간 코스피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7년 개편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여섯 차례 대선(13~18대)에서 3차례

는 오르고 3차례는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3대 대선 한 달 후 코스피 상승률이 24.08%로 가장 높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 때도 외환위기 여파에도 18.5% 올랐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한 달 후 주가는 10.26%와 6.81% 각각 하락했다.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책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온 점도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대선후보들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재벌 등 대기업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심했는데 대선 이후 공약이 현실화되면 대형주 위주였던 증시의 열기가 중·소형주로도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센터장은 "또한 최근 약탈러 기조로 신흥국, 그중에서도 경수수지 등이 양호한 한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등 새 정부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여러모로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연남뉴스

현대·삼성중 초대형유조선 수주 잇따라

현대 4척·삼성 8척 등

최고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다.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노르웨이의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 회장이 소유한 세계 최대 유조선 선사인 프론티어(Frontline)으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했다.

2척은 건조 주문이 확정됐고 2척은 옵션으로 포함됐다. 전체 계약금액은 3억 2000만 달러로 알려졌다.

VLCC 건조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맡게 되며, 건조된 선박은 2019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그리스의 선사인 케이피탈 마리티타임(Capital Maritime)과 VLCC 최대 8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투자방향서(LOI)를 체결했다. 통상 선사는 발주 전 단계로 조선소와 투자방향서를 먼저 체결하며 이후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최종 계약을 하게 된다. 본계약은 4척의 VLCC 건조와 함께 추가 4척은 옵션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아직 본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전체 계약 규모는 6억5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의 BW사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이 마지막으로 VLCC를 인도한 것은 2012년으로, 이번 수주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5년 만에 VLCC 건조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전체 계약 규모는 3억3479만 달러로 알려졌다. 건조된 선박은 2019년 7월까지 인도 예정이다.

최근 VLCC 발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까닭은 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VLCC의 신조선가(신규 건조 선박 가격)는 8000만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이에 선사들은 VLCC 신조선가가 최저점인 올해가 발주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사들은 이집에 선박 연령이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다 국제 유가의 회복세, 동남아 지역 정유공장의 신규 가동 등도 VLCC 발주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총 12척의 VLCC가 발주되면서, 지난해 연간 발주량인 14척을 벌써 넘어섰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23년만에 매출 40조 돌파

정부 규제·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2012년 이후 성장세 꺾여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섰다.

1993년 11월 이마트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1호점을 선보인 지 23년 만에

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 규모(매출)는 40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39조4000억원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30조원을 돌파했던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010년대 들어 당국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3~2015년에는 3년 연속 39조원대에 머물며 40조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기간에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률은 0.3~1.6%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제가 본격 도입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전년보다 신규 점포수가 6개 늘어난 데 힘

입어 간신히 40조원의 벽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도 대형마트 업계

가 정치권의 유통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과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1위 이마트가 올해 시장 진출 24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점포를 내지 않기로



투표 인증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고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아 '투표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한 한 소비자가 롯데상품권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것도 대형마트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시장 규모가 업종 도입 23년 만에 40조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당국의 규제와 온라인 쇼핑 트렌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여건은 좋지 않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에 마스크·청정기 특수

전년보다 마스크 매출 8배·공기청정기 5배 늘어

이번 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이 반값지 않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중국에서 몰려온 황사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면서, 마스크 매출은 1년 전보다 최대 8배, 공기청정기는 5배 가까이 경종 뛰었다.

◇ 마스크 매출 최대 7.6배 늘어 = 9일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마스크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4% 불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지난 주말(5월 6~7일)에는 마스크 매출이 1년 전의 5배 이상(446%)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마스크의 티슈(23%), 손 세정제(21%), 구강용품(15%) 등 다른 위생용품 매출도 일제히 늘었다.

이마트에서도 이달 1~7일 마스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102.3%)까지 뛰었다. 온라인쇼핑 시장에서도 마스크 수요는 '폭발적'이다.

티몬에서 4월 한 달 동안 'KF80'과 같은 인증 마스크의 매출은 작년 4월의 2.1배로, 5월 들어서는 7월까지 지난해 동

기의 7.6배(660%)로 뛰었다.

◇ 공기청정기 매출도 '폭'...의류건조기·공기정화 식물도 인기 = 마스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에서 지난달 공기청정기 매출은 1년 전의 2.5배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공기청정기 매출도 각각 233%, 56.8% 급증했다.

5월 들어 공기청정기 '특수'는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롯데하이마트의 공기청정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의 5.1배(410%), 이마트는 4배 이상(349%)까지 각각 치솟았다.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에서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기청정기 매출은 전년 동기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5월 6~7일) 이를 통한 하루 평균 거래액은 4월 1일~5월 5일 1일 평균의 7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11번가에서 의류건조기 매출은 1년 전보다 817% 상승했다. 지난달 티몬에서 팔린 공기정화 식물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맥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